광주일보 10기 리더스아카데미-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 강연

"해외에서의 오페라 관람, 인생 최고의 경험이죠"

티켓 예매하고 여행 계획 짜야 캐논·레퀴엠 등 명곡 비화도 소개



"유럽에 가시 면 그 나라의 오 페라 하우스를 꼭 가보세요. 어 느 도시나 가장 힘줘 만든 건물 이 오페라 하우 스에요. 한번 오 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을 보고 나 면 다음 여행부 터 공연을 보지 않고 돌아올 경

우 허전함을 느낍니다. 유럽의 길거리가 일찍 어두 워지는 이유도 공연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당 일 표를 구할 수 있는 공연은 절대 보지 마세요. 공 연티켓을 우선 예매하고 여행일정을 짜서 떠나야 하지만, 그 경험을 최고로 칠 겁니다.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현악 4중주단 '콰르텟엑스' 를 이끌고 있는 조윤범(47·사진)씨는 지난 3일 광 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 카데미' 특강에서 "아무리 비싼 오디오나 고가의 장 비가 주는 즐거움도 실제 연주를 따라가지 못한다. 코로나19 엔데믹이 다가오면서, 직접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그때를 대비해 내가 왔 다"며 딱딱해 보이는 주제(클래식)를 특유의 재치 와 입담으로 유쾌하게 풀어갔다.

그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바로크 시대 음악가 파 헬벨의 명곡 '캐논'은 첼로 연주자들이 가장 싫어하 는 곡이라며 연주가의 숨겨진 애환을 들려줬다. "캐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이 지난 3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제10기 리더스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논은 푸가(Fuga)라는 일종의 돌림노래 형식인데 첼리스트는 이 곡을 굉장히 싫어하죠. 곡이 끝날 때 까지 8가지 뿐인 음을 무려 28번이나 반복해야하기 때문이죠. 악보를 보지 않고도 바이올린이 연주가 끝날 때 눈치보다 연주를 마감하면 될 정도죠. 하지 만 첼로가 없다면 아름다운 앙상블이 나올 수 없습

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클래식 곡 가운데 작 곡가가 잘못 알려진 이른바 '위작' 들에 대한 설명과 위작이 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소개했다.

"114 통화연결음으로 익숙한 하이든의 '세레나 데'라는 곡은 사실 로만 호프슈테트(Roman hoffstetter)의 곡입니다. 그러나 출판사에서 작곡 가가 무명이면 이름을 지워버리고 당대의 클래식 계 슈퍼스타 하이든이라고 써 판매한 게 지금까지 이어졌죠. 또 하이든이 쓴 것으로 알려진 장난감교 향곡 역시 음악학자들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작품이 라고 판명 났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작곡가 라는 말도 있지만 정확히는 드러나지 않았습니

그는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대중들이 잘 알지 못했던 그의 유작 '레퀴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레퀴엠'은 장송곡이다. 발제크 백작이라는 한 부유한 귀족의 요청으로 모차르트가 작곡하게 된 곡이다. 사실 발제크 백작은 많은 돈을 주고 음악가 들로부터 곡을 산 뒤 자신의 곡이라며 자랑해 왔는 데, 모차르트가 약속을 어기고 레퀴엠을 발매하자

화가 났다. 하지만 모차르트가 이곡을 쓰다 사망했 고, 그의 아내가 생계를 위해 이 곡은 출판사에 판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그냥 넘어갔다. 모차르트 는 사실상 자신의 장승곡을 작곡하다 숨진 게 아닌

그는 마지막으로 해외 공연장에서의 오페라 관람 을 겁내지 말라고 했다. 그는 "언어를 몰라도 공연 일주일 전에 오페라 영상을 보며 자막을 익힌 후에 관람 한다면 현지인들처럼 음악을 들으며 울고 웃 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 그 리고 오페라 공연을 보는 것 두가지는 잊지못할 경 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공연장에서 만나자" 라며 강연을 끝마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양에너지, 동신대 인재양성 기금 1000만원 기탁



해양에너지 김형순(오른쪽) 대표가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동신대학교에 대학 발 전기금 1000만원을 또 다시 기탁했다. 동신대는 지난 3일 대학 부속실 소회의실에 서 '해양에너지 발전기금 기부 협약식'을 개최했다. 1000만원을 기부한 해양에너지 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2000만원을 지역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인재 양 성을 위해 동신대에 쾌척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동신대와 해양에너지는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 발전과 전문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부 홍보위원회 발족 및 위촉장 전달식 신안농협, 보이스피싱 근절 캠페인 펼쳐



월남전참전자회 광주시지부 홍보위원회 발족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광주시지부는 4일 광주시 보훈회관에서 지부 홍보위원회 발족 및 위촉장 전달 식을 열었다. 〈월남전참전자회 광주시지부 제공〉

신안농협은 최근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기통 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사진〉

개인정보, 계좌이차 요구 전화는 100% 전화금융사기!

신안농협은 고객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대포통장 근절 안내 전단지를 나눠주며, 보이스피 싱이 의심될 경우 경찰청 112센터나 농협 또는 거 래은행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안농협 관계자는 "최근 신종금융사기가 극성 하고 있는 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에

辰

巳

대한 조합원 및 고객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앞으로 도 농촌 어르신들께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 농협은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2019년 (754건·155억원), 2020년(1198건·200억원), 2021년(1699건·307억원)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 고 있으며, 2022년에도 2월말 기준 177건에 35억 원의 피해예방 성과를 내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0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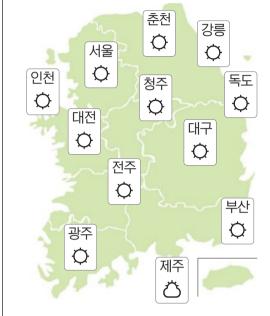
23:36

어린이 마음처럼 '화창'

일교차 매우 크고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1/29	보성	맑음	7/23
목포	맑음	12/24	순천	맑음	10/24
여수	맑음	13/21	영광	맑음	9/24
나주	맑음	8/26	진도	맑음	10/23
완도	맑음	11/23	전주	맑음	11/26
구례	맑음	8/27	군산	맑음	9/23
강진	맑음	8/24	남원	맑음	7/26
해남	맑음	7/24	흑산도	맑음	11/20
장성	맑음	7/26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m)
1.1-11	앞바다	0.5	0.5
서해 남부	먼바다(북)	0.5~1.0	0.5~1.0
	먼바다(남)	0.5~1.0	0.5~1.0
1 1-11	앞바다	0.5	0.5
남해 서부	먼바다(서)	0.5~1.0	0.5~1.0
	먼바다(동)	0.5~1.0	0.5~1.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00	04:51
寺 至	21:50	16:34
어스	05:19	11:09
여수	17:14	23:53

◇ 생활지수

1/1	*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낮음	매우 높음	보통

◇ 주간 날씨

6(금)	7(<u>토</u>)	8(일)
\triangle	\text{\tin}\exitt{\text{\tin}\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ex	杏
14/27	16/24	11/23
9(월)	10(호)	11(수)
杏	杏	\triangle
12/24	12/24	15/24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L\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미샤엘 크리스틴씨 아들 크리스군, 김명술(광 주드림 사장·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회장)·오채화 씨 딸 현정양=5월 7일(토) 오후 5시 광주 서구 라 마다 플라자호텔 4층 대연회장. 062-717-7000.

▲조덕선(SRB미디어·무등일보 회장)·차미임씨 장남 휘석(사랑방미디어 이사)군, 은봉환·이현숙씨 딸 소명양=14일(토) 오후 5시30분 광주 광산구 임 방울대로 하우스오브드메르 1층 지젤 홀 070-8822-3775.

부음

▲고춘선씨 별세, 이경호(전 광주시의원)씨 모친 상=발인 6일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303호실 062-250-4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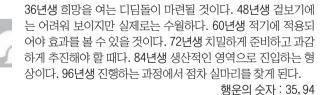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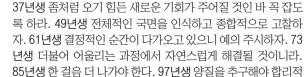
子

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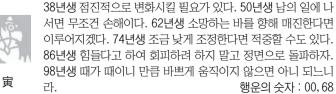
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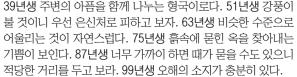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5일 (4월 5일 戊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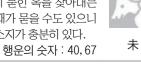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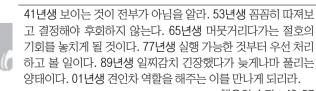
록 하라. 49년생 전체적인 국면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하 자. 61년생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자. 73 년생 더불어 어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니라. 85년생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97년생 양질을 추구해야 합리적 행운의 숫자: 4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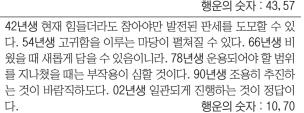






40년생 점점 활기를 띠면서 운로가 왕성해진다. 52년생 중간 점 검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니라. 64년생 순탄하지 않다면 내면 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76년생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이니 기대해 볼 만하다. 88년생 힘들면 쉬었다 하되 절대로 포기 해서는 아니 된다. 00년생 과욕의 크기 만큼 잃을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09,55





43년생 과욕은 훗날의 아픔을 예고하는 진원지가 된다. 55년생 신규는 절대로 아니 되니 꿈도 꿔서는 아니 되겠다. 67년생 불필 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79년생 주변과 관련된 거 의 모든 이의 관심이 모아지는 현태이다. 91년생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03년생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37,91



申

酉

44년생 심기가 불편한 판도가 역력히 보이느니라. 56년생 예감 하여 왔던 바가 현실적으로 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68년생 감 당할 수만 있다면 수용하는 것이 백 번 낫다. 80년생 일시적인 현 상에 불과하므로 개의치 말라. 92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는 쪽으 로 가닥을 잡아보자. 04년생 소를 버렸을 때 대를 취한다.

행운의 숫자: 07,88

2 010-9790-8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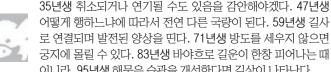


33년생 시련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45 년생 결과가 모든 과정을 정당화 시킬 것이다. 57년생 대어는 다 놓치고 피라미에 집착하고 있는 성국이다. 69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81년생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 다면 후회한다. 93년생 기본에 충실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행운의 숫자: 47,98



34년생 성사는 되지만 성과는 미흡할 것이다. 46년생 전혀 다른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음을 알자. 58년생 차분하면서도 매우 신 중하게 실행하자. 70년생 규모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 옳다. 82년생 참신한 발상과 의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가 되었도다. 94 년생 극상의 정점에 와 있으니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 행운의 숫자 : 38,63



행운의 숫자: 19,83





이니라. 95년생 해묵은 습관을 개선한다면 길상이 나타난다.